

글로벌 에너지 수요 급증... 전력기기 3사, 수주잔고 17조 돌파

(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

전력기기업계 대규모 일감 확보
변압기 공장 증설 등 경쟁력 강화
“시장 성장세 더욱 두드러질 것”



HD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스마트 공장 외경



효성중공업 미국 테네시 펠피스 초고압변압기 공장 전경.

국내 전력기기 3사(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LS일렉트릭)가 3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며 초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력기기 수요 사이클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드는 ‘피크아웃’ 우려를 제기했으나 시장은 여전히 수요 우위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의 추가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력기기 3사의 기업 총 수주 잔고가 17조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와 유럽, 중동 지역들의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와 전력망 현대화, 미국의 노후 전력기기 교체를 비롯해 AI 시장 성장에 따른 데이터센터 수요가 확대된 점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AI 시장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전력기기 업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은 AI시장이 올해 449억달러(63조원)에서 2032년 5배 이상 증가한 2620억달러(369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AI 행정명령을 폐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빅테크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건립이 늘어나 시장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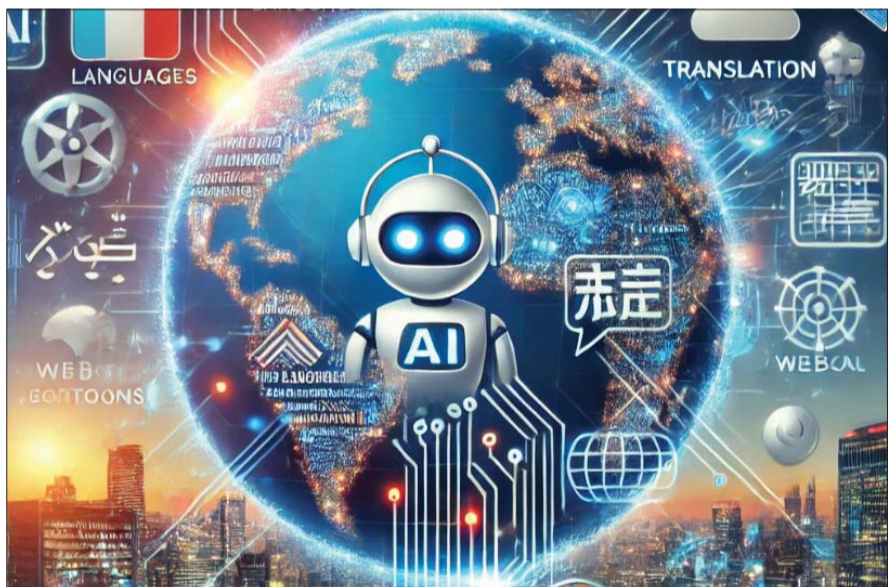
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으로 값싼 전력 공급에 대한 정부 방침이 확고해질 것으로 관측되며 스마트그리드 시장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소비자와 공급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전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전력 생산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곧바로 확인해 전력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전기요금이 쌀 때 전기

를 쓸 수 있게 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대중 제재를 예고하며 국내 전력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감을 넉넉히 확보한 전력기기 업체들도 증가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7월 미국

앨라배마주 변압기 생산공장의 변압기 전문보관장(1만2690m2) 증설을 마쳤다. 이를 통해 회사는 변압기가 곧바로 보관장으로 옮겨져 조립라인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외부보관장 이용에 따른 운반·보관비 절감 효과 등 수익성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성중공업도 미국 내 생산기지 증설에 집중하고 있다. 효성중공업의 미국 법인 효성HICO는 지난 7월 실시간 유상증자에 670억원을 투입했다. 오는 2027년 증설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변압기 생산능력이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LS일렉트릭 또한 지난 2023년 7월 텍사스주 배스트롭에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해 현재 부지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과 에너지 전환 기조가 맞물리면서 전력기기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글로벌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번역, 더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IT업계, 세계시장 공략

네카오 등 AI 번역기술 경쟁력 강화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지원 필요”



‘AI 번역이 언어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콘텐츠를 연결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 /Chat GPT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언어 장벽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AI 기반 언어 번역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19일 <메트로 경제>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대기업부터 플리토, 엑스엘에이트(XL8) 등 AI 번역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IT 기업들이 AI 번역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AI 번역은 AI 기술을 활용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텍스트나 음성을 자동 변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단순히 단어를 치환하는 것을 넘어 문맥과 뉘앙스를 반영해 번역의 정확성과 자연스러움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한국 주요 IT 기업들은 이미 AI 번역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네이버는 AI 번역 서비스 ‘파파고’를 통해 시

장 선두를 달리고 있다. 파파고는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텍스트, 음성, 이미지 번역은 물론, 실시간·오프라인 번역 기능까지 제공한다. 특히 동남아와 일본 시장에서의 현지화 전략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지난 6월 기준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약 842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는 웹툰 현지화에 AI 번역 기술 활용을 검토 중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웹툰과 웹소설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AI 번역 기술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AI 번역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플리토는 다국어 번역 데이터 플랫폼을 기

반으로 미국, 일본, 베트남, 중동 등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플리토의 AI 번역 엔진 ‘CT엔진’은 고유명사와 특수 용어를 사전에 학습해 맞춤형 번역을 제공, 정확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엑스엘에이트(XL8)는 영상 번역 자동화 기술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 협력 중이다. ‘미디어켓(MediaCAT)’은 영상 콘텐츠의 대사를 추출하고 번역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로,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자막의 초벌 번역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AI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AI 번역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AI 프로젝트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AI 번역 기술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AI 번역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

>> 1면 ‘연금개혁 공회전...’서 계속

2030세대 불신 고조 절반 “폐지론 찬성”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연금폐지 반대 응답이 더 많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20대·30대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20대에서는 찬성이 47.5%로 반대(40%)보다 많았고, 30대도 찬성이 48.3%로 반대(45.6%)보다 많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연금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이 15.1%에 그쳤다. 고령화·저출산이 가속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6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며, 2093년에는 총 누적 적자액이 2경165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93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 18~64세) 1인이 1.5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하루마다 1500억원의 적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은 70.9%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18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만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적립부채를 인식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재정안정이나 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해가는 상황(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 더 나뉘 갖자는 의견(소득 보장을 강화하지는)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삼성·LG, 스마트 글라스 등 차세대 기기 상용화 예고

>> 1면 ‘AI 융합, XR의 진화’서 계속

새로운 스마트 글라스의 초기 생산 대수는 약 50만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초기 제품 수요·성능 등을 보고 이후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아예 한정수량 제품으로만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마트 글라스의 제원을 살펴보면 퀄컴의 AR1 칩을 주처리장치, NXP 칩을 보조처리장치로 사용하고 1200만 화소의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샘모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3분기 즈음 XR 스마트 글라스를 출시할 전망이다. 이는 애플 MR 기기 비전프로나 메타 퀘스트 같은 ‘헤드셋’ 형태가 아니라 ‘안경(스마트 글라스)’의 형태가 유력시되고 있다. 애플의 비전프로는 이미 7개 애플스토어를 통해 국내에 출시됐다. 비전프로는 구글 형태로, 디지털 콘텐츠와 실제 세계를 결합해주는 기기다. 애플 비전 프로 이용자는 앱을 보고 두 손가락을 맞대 탭하면서 앱과 상호작용한다.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 또한 지난달 쉐클 스냅드래곤 테크 서밋에 참석해 “이제 XR 생태계에서 새로운 렌즈를 통해 AI(인공지능)의 이점을 확인할 때”라고 밝히며 AI 기능을 접목한 새로운 XR 폼팩터의 등장을 예고했다. LG전자는 메타와 협력한 XR 기기를 내년에 상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지난 2월 메타와 확장현실(XR) 사업 전략적 협업을 본격화했다. 오픈소스 거대언어모델(LLM) ‘라

마’를 확장현실(XR) 기기에서 활용하고, 웹OS 플랫폼을 메타 XR 기기와 연동함은 물론 콘텐츠 협력을 통해 미래 가상 공간 영역에서 고객 경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이 같은 방안을 협의하고 XR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조사장은 “LG전자와 메타가 협업한 MR 기기의 구체 모습은 2025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빠르게 출시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제대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